

최근 오피꾸뛰르 복식에 표현된 개더(Gather)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lasticity of the Gather Represented in Haut Couture

강숙녀(Suk-nyu, Kang)

국립원주대학 의상과 조교수

1. 서론

2. 개더의 이론적 배경

- 2-1. 개더의 의미
- 2-2. 개더의 종류
- 2-3. 개더의 조형적 특성
- 2-4. 고대 복식에 표현된 개더의 조형성

3. 오프꾸뛰르 복식에 표현된 개더(gather)의 조형성

4. 결론

참고문헌

(要約)

오프꾸뛰르 복식은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안할 뿐 아니라 복식의 고유한 요소 즉, 수공예적이며 전통고수의 성격을 강하게 갖으면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대중적 요소가 결합되어 세계모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요소는 개더의 고유한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기술 구사적 측면으로서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술적 요소가 현대의 여러 사조 및 소재나 복식디자인적 요소와 융합하여 복식의 기능적 측면과 장식적인 측면이 융합되어 착용자나 디자이너에게 있어 미적 표현과 감성적인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20세기는 새로운 예술운동의 범람과 전위적 운동의 전개로 전통적 장르가 붕괴되거나 혼합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믹싱현상은 트랜드의 부재, 패션의 부재라 할 수 있는 해체주의적 경향을 띄게 되어 최근 오프꾸뛰르에 나타난 개더의 유형으로 아이템이나, 소재, 디자인에서 혼합적 양상이 개더의 디테일적 요소와 융합, 상충, 병치되는 등 인위적인 구성인 복합구성의 자유로운 형태로서 다종다양하게 나타났다.

(Abstract)

A Study on the Plasticity of the Gather Represented in Haute Couture

The Gather is the plastic technique to represent a sense of voluminosity by pleating the plane of costume and manifests the emotional effects, such as both functional aspects and the construction of form, optical illusion effect, textural feelings from materials, tactile transformations, etc. So it is used as the tool to represent the plastistic beauty of costume.

The plasticity of the ancient gather was the drape arising according to the curve of the body, but the type of gather recently found on the haute couture does not only retain the activity and functionalism on which the technical element and the ornamental aspect are mixed with other techniques.

(Keyword)

Gather, Haute Couture Collection, Plasticity

1. 서론

현대에 이르러 복식은 기능적 측면 뿐만 아니라 창작을 통한 시각적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다양한 소재와 기법으로 미적 기능과 조형적 측면을 강조하고 조형개념의 다변화에 따라 창조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경향을 띄고 있다.¹⁾

조형예술의 한 분야인 복식은 평면적인 천이나 기타 다른 소재를 도구로 입체적인 형태미를 갖는다는 면에서 다른 생활 조형과는 조형적 특수성을 갖는다. 이는 또한 입는 사람의 체형과 착장방법에 따라 각기 다르게 표현되며 동작에 의해 다양한 실루엣과 이미지의 변화를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형미를 나타내고 있다.

인터패션플래닝(주)의 정보 기획팀에서 제시한 '98 S/S 여성 패션 트렌드의 가장 큰 특징은 로맨틱한 페미니즘(feminism)으로 결코 섞일 수 없다고 생각되던 미니멀리즘(minimalism)과 로맨틱시즘(romanticism)이 조화를 이룬 경향을 보임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가 좁아진 현대의 사이클 안에서 시대적 사조가 서로 상반되는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며 상호교류적인 상호텍스트(intertextuality)적 성향을 띄게 되었다.

과거로의 회귀 현상과 함께 복고적인 패션의 대두는 19세기 로맨틱시즘에 대한 우아하고 화려했던 옛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바탕으로, 현대에 와서 재해석 되어져 나타나고 있다.²⁾ 이러한 트렌드의 영향은 로맨틱 경향을 바탕으로 모더니즘과 에스닉이 믹스되어 전혀 다른 테마로 인식되어 오던 미니멀리즘과 로맨틱시즘 등이 혼합되어 현대적이고 내추럴하게 표현되고 있다.

실루엣, 디테일, 트리밍 등의 복식디자인의 요소 중 로맨틱 스타일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로서의 개더는 평면 장식이 아닌 구조 자체의 조형적 성격으로 소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디자인 요소로서가 아니라 질감적, 촉각적 변형을 기대할 수 있는 조형적 요소를 띄고 있다.³⁾ 이러한 입체조형 구성은 시각적 표현으로서가 아니라 공간적 차원으로서 새로운 복식의 조형요소로서 존재하기도 한다.

의복의 구성 및 장식기법은 그 종류와 이용 방식이 시대에 따라 많은 변화를 보이나 천을 박아 줄이는 하나의 기법⁴⁾으로 우아하고 유연한 여성미를 연출해 내는 개더는 기능성과 함께 소재, 개더분량, 디자인 등에 따라서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유행을 초월하여 가지가지로 변화되고 때로는 다른 기술과 병합하여 다양하게 쓰여지며 독특한 조형성으로 각각의 복장미 형성에 대단한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형적 특징을 띄는 개더링의 기법은 현대에 와서는 세기 말적 현상인 유행적이며 탐미적 현상과 더불어 심미적 구성요소로서 존재하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모아서 당기거나 죄어 생긴 드레이프를 포함하여 스티치를 박아 당겨 생기는 주름을 개더의 개념으로 보아 자연발생적인 개더를 많이 볼 수 있는 고대 드레퍼리(drapery) 복식에서 개더의 조형성을 살펴보고 최근 1990년도 후반기 파리 오프뚜튀르 컬렉션(Paris Haute Couture Collection)의 복식에 표현된 개더의 변용 및 조형적 특성을 고찰하여 개더의 변용과 조

형성이 각 디자이너들에게 어떻게 재조명되고 재창조 되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함에 있어 오프뚜튀르 컬렉션에 보여진 복식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함은 오프뚜튀르 복식은 새롭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안할 뿐 아니라 복식의 고유한 요소 즉, 수공예적이며 전통고수의 성격을 강하게 갖으면서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대중적 요소가 결합되어 세계모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는 개더의 고유한 구조 자체가 갖고 있는 기술 구사적 측면으로서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기술적 요소가 현대의 여러 사조와 함께 호흡하면서 소재나 복식디자인적 요소와 융합하여 창조적이며 독창적인 유행을 표현하면서 복식에 있어서 기능적 측면과 장식적인 측면이 융합되어 착용자나 디자이너에게 있어 미적 표현과 감성적인 측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현대복식중 고감도의 오프뚜튀르의 복식을 중심으로 개더를 고찰함은 현대복식으로서의 오프뚜튀르의 조형성을 밝힐 뿐 아니라 개더의 조형적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개더의 변용과 조형성을 밝히고, 단지 개더가 복식의장학적 요소로서만이 아니라 복식의 세계사적 흐름과 복식이 함께 호흡하고 있음을 디자인적 요소로서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복식디자인의 조형요소로서 개더를 새롭게 인식하여 조형발상의 원천으로 삼아 변화하는 21세기의 패션경향에 발맞추어 복식디자인을 개발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개더의 이론적 배경

2-1. 개더의 의미

개더란 직물에 스티치를 박아 잡아 당김으로써 생기는 부드러운 주름을 말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구성의 것은 단지 직물을 「모아 줄이다」, 「주름 잡는다」, 「죄다」, 「매다」 등의 원시적인 테크닉으로⁵⁾ 원래 얇고 평면이었던 직물을 가지가지의 곡면(曲面)으로 만드는 등 깊이가 추가된 3차원적인 입체공간을 구성했을 때 이것을 개더라고 말할 수 있다.

기본적인 개더의 단순한 구성은 직선적인 흐름과 직물의 음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그 예로 평면의 직물로 입체적인 인체를 덮을 시의 자연발생적인 개더로 직물의 주름이 자유롭게 표현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드레퍼리(drapery)형 의복을 들 수 있다.

의복을 인체에 맞게 하기 위한 재단법의 기초가 만들어지면서 개더는 인공적으로 조형되어 표현되고 있다. 허리선, 요크, 소매, 칼라, 햄라인 등의 요소요소에 장식적 기법으로서만이 아니라 세부적인 기술의 진보도 보여지며 다른 장식 기법과 혼합되는 등 복합적인 구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더는 그 기능적 특성 외에도 특유의 조형성 때문에 복식의 각부분에서 전체적인 외형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시대가 변하고 유행이 바뀔 때도 불구하고 빼놓을 수 없는 복식구성의 기본요소와 장식적인 기법이 되고 있다.

2-2. 개더의 종류

개더의 종류로는 크게 러플(ruffle)과 프릴(frill), 셔링(shirring)을 들 수 있으며 이중 프릴은 셔링프릴, 턱프릴(tuck frill), 루싱

1)민경애, "주름의 선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 i v.

2)한국염색신문, 1997, 5, 26.

3)패션투데이.(주) *패션정보사*, 1997, 2.

4)이은경, "복식에 표현된 'Plats Design'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산업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4.

5)千葉美惠子, 佐佐木さき子, "ギャザーの變容について, 衣生活, 衣生活研究會, 1985, 4. No.1 通卷 256号, p.31.

6)Ibid, p.8.

(ruching)으로 나눌 수 있다.

러플(그림 2-1)은 직물의 길고 가느다란 조각에 개더를 잡아 만들어지는 것으로 장식적인 것이다. 러플은 플라운스(그림 2-2)와 같이 플레어(flare)형의 바이어스 천으로 만들어 지는 것끼리 이러한 플레어 형태의 직물에 개더를 잡은 형태를 러플이라고 하며 개더를 잡지 않은 상태의 플레어 형을 플라운스라 한다. 프릴은 원하는 폭의 천을 길이의 2~3배로 준비하여 개더나 턱모양으로 하여 집어 넣는다든지 끝장식을 하는 것으로서 직물을 올 방향으로 똑바로 길게 잘라 만든 것이고 개더플라운스나 러플은 플레어의 형태에 개더를 넣은 것으로 기술로서의 표현은 같았지만 별개의 것으로 구별되고 있다.⁸⁾

이러한 개념으로 복식사를 관찰하여 보면 19C 말경까지의 의상에 장식되었던 끝장식은 대부분 곧은 울로 된 사각형을 박아 줄인 프릴이고 그 이후는 부채꼴 모양을 박아 줄인 플라운스나 러플이 많이 쓰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링프릴(그림 2-3)은 보통 개더만 들어간 프릴을 말하며 턱프릴은 그림 2-4에서와 같이 개더를 넣어 프릴을 잡되 규칙적인 턱을 준 형태이다. 루싱(그림 2-5)은 프릴과 같은 개더의 기법이나 개더를 스트립(strip)의 가운데에서 잡아 양쪽으로 프릴이 생기게 만든 더블프릴(double frill)이다. 서링(그림 2-6)은 여러 줄의 평행한 개더로 형성되며 개더의 부피 때문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경향이 있다. 바늘땀의 방향이나 그에 수직인 개더에 의한 접힘선의 방향 중 어느 한 쪽이 강조될 수 있다.⁹⁾



[그림 2-1] ruffle



[그림 2-2] flounce



[그림 2-3] shirring fr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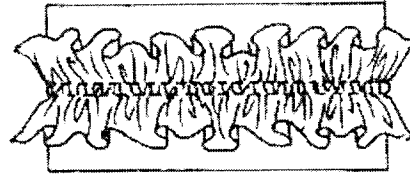


[그림 2-4] tuck fr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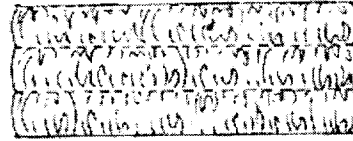
7)이유경, "주름의 조형성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p.8.

8)井場はぎの, "Flareについて 研究", *衣生活研究, 關西衣生活研究會*, 1991, 11. vol.18, No.5, p. 61.

9)Marian L. Davis, 「복식의 시각디자인」, 이화연의 2인 공역, *경춘사*, 1990, p. 132.



[그림 2-5] ruching



[그림 2-6] shirring

2-3. 개더의 조형적 특성

조형이란 의미의 어휘는 독일어의 *formgebung*, 혹은 *gestalt*라고 표현했으며 *gestalt*는 사전적 의미로는 「good form」 혹은 「good figure」라고 말하고 있으나 형태라기 보다는 조형이라는 전체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⁰⁾ 따라서 *gestalt*는 조직(organization), 형상(configuration), 전체(wholeness)의 개념을 내포하며 요소로서의 형태가 아닌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는 전체로서의 형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¹¹⁾

영국의 디자이너 비비언 웨스트우드(Vivienne Westwood)는 조형적 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흥미를 갖는 것은 옷을 만드는 일 자체가 아니라 옷이 몸에 걸쳐졌을 때 어떻게 보이며, 그 옷을 입는 사람이 서서 움직이는 등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동작을 할 때에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이다."¹²⁾라고 함으로써 복식을 인체와 그 동작에 따른 인간의 내면세계를 질서있게 표현한 시각적, 입체적 조형물로 인식하였다.

복식의 조형예술적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개더는 복식의 활동성과 기능성을 보유하며 복식의 형태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초월하여 재도전, 재활용되어진 결코 제외되어질 수 없는 중요한 복식의 구성요소로서 미적 특성과 조형적 가치를 지닌다.

또한 개더는 인체 위에 입혀졌을 때의 형태미와 인체가 움직였을 때의 개개인의 동적인 선과 내면적인 미를 종합한 복합적인 조형미를 갖고 있다. 개더의 형태미는 길이와 너비 외에도 물리적인 깊이가 추가된 공간인 3차원적인 형태¹³⁾의 부피감을 나타내며 또한 빛과 그림자에 따른 깊이를 주며 이들은 동작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리드미칼한 율동미를 포함한 새로운 구조적 조형미를 연출한다.

개더가 갖는 조형성의 기초는 곡선으로 직선보다 단정적, 예측적이지 않고 또한 측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곡선은 그 의미에 있어서 대단히 복합적이라 할 수 있다. 곡선은 자연적인 동시에 율동적인 기능이 특징으로 생생한 생명감과 활동성을 지니고 있

10)진성모, "Fashion Design의 조형적 특성과 그 실현가능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p. 3.

11)정시화, 「현대디자인연구」, *미진사*, 1981, p. 36.

12)Linda Dyett, "Art to Wear", 「종합디자인」, 서울, 1985. 2. pp.3 2~33

13)Wucius Wong, 「디자인과 형태론」, 최길렬 역, 서울; 도서출판 국제, 1995, p. 237.

으며 곡선의 복합체는 사람들을 도취시킬 수 있는 우아한 조화를 표현하고 있다.¹⁴⁾ 따라서 복식에 표현된 개더의 곡선미는 복잡한 곡선으로서 기하곡선이 아닌 자유곡선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부드럽고 여성적이며 매력적이다. 또한 개더가 갖는 곡선으로 형성된 공간감과 부피감은 시각적 효과와 관련하여 기능적 측면에서의 만족 뿐 아니라 형태구성, 착시의 효과, 소재에서 오는 질감과 촉각적 변형 등 복식조형적 측면에서 감정적 효과를 발현하는데 영향을 준다.

이러한 개더의 조형미는 복식에 응용된 개더의 소재 선택에서부터 다양한 기법으로 완성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운 형태의 조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2-4. 고대 복식에 표현된 개더의 조형성

고대 복식에 표현된 개더는 대단히 원시적인 테크닉으로 단순히 옷감을 몸에 걸쳐 묶거나 끈으로 잡아매거나 몸에 둘러 감거나 핀(pin)이나 부룻치(brooch)를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순한 구성 가운데 직선적인 흐름이나 곡선의 흐름으로 천의 음영과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여러가지 형태미를 창출한다.



[그림 2-7] 신왕국시대 제 18왕조 투탄카문의 묘에서 출토된 셀켓여신상 (The goddess selket) [발췌]이집트 문명전, 1997,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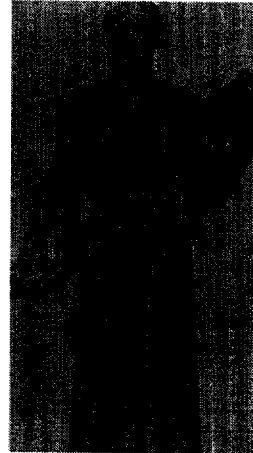
[그림 2-7]은 신왕국시대 제 18왕조 투탄카문의 묘에서 출토된 셀켓신(goddess selket)상으로 투탄카문의 내장을 담은 카노푸스단지(罐)를 끼고 있는 4명의 여신상 중의 하나로¹⁵⁾ 로브(robe)형식의 의복인 칼라시리스(kalasisiris)를 걸치고 있다. 이 칼라시리스는 특별한 구성기술이 없이 반투명한 린넨의 가운데에 목둘레선을 내고 양옆선을 앞으로 접거나 앞자락을 뒤로 돌리고 뒷자락을 앞으로 돌린 후 허리띠를 매거나 끈으로 꽂아 입었다.¹⁶⁾ 허리띠를 묶는 방법에 따라 자연스러운 개더가 형성되기도 하고 끈을 중심으로 방사선의 개더가 정교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져서 마치 스커트 위에 케이프를 입는 것과 같은 우아한 아름다움을 나타내 주고 있다. 비교적 두꺼운 옷감으로 폭을 넓게하여 착장했을 때에는 굵고 풍성한 개더의 형성으로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냄으로 의식이나 축제의복으로 입혀질 수 있었으며 매우 얇고 곱게 짠 투명한 린

14)이영민, "선의 율동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 9~10.

15)이집트문명전, 예술의 전당, 97, 6.

16)정홍숙의 고증, 「고대 이집트문명」, 도서출판(주), 에이피 인터내셔널(editions A. P. I)(주)아문, 1997, 6, p. 128.

넨을 사용했을 때에는 정교한 개더로 인하여 동작에 따라 개더의 움직임으로 속의 인체가 은은하고 아름답게 비치는 에로틱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8] 솜을 추는 소녀 [발췌]서양복식문화사, p.101

[그림 2-8]은 도릭키톤(doric chiton)으로 단순한 아름다움의 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형식은 알카익 시대 그리스의 도리아 남녀가 입기 시작한 기본적인 의상으로 얇은 모직(wool)으로 된 직사각형 천의 세로 길이의 1/2~1/3되는 윗부분을 바깥쪽으로 접은 뒤에 횡으로 두겹으로 접어 사이에 몸을 넣고 양쪽 어깨부분 앞, 뒤 천의 상단을 피블라(fibula)로 고정시켜 두고 있다.¹⁷⁾ 착장의 변화로서는 접어 넘긴 부분(apotigma)의 길이를 변화시키거나 오른쪽의 옆 아래가 캐매어지기도 하고 트인 상태로 입기도 하였다.¹⁸⁾ 또한 몸체를 가는 끈으로 매서 블라우징(blousing)시켜 그 부분(kolpos)의 분량이나 형태의 변화를 갖게 하는 등이다.¹⁹⁾ 상반신은 드레이프지면서 허리끈을 맨 상체는 부풀려져서 아름답게 보이고 하반신은 자연발생적인 개더로서 아래까지 흐른다.

초기의 개더는 수직 표현이 많고²⁰⁾ 여신상 등은 그 곳에 엄격함이나 장중함이 나타나지고 있다. 극히 단순한 구성이나 접어 넘긴 부분이나 브라우징된 부분에 명칭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이 착장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point)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도릭키톤에는 그 소재의 느낌과 구성의 특징에서 중후한 개더의 조형미를 엿볼 수 있다.

[그림 2-9]은 이오닉키톤에 허리끈을 2개 맨 위에 클라미스(chlamys)를 입은 모습이다. 이오닉키톤은 이집트로부터 수입된 반투명한 얇은 린넨으로 만들어졌으며²¹⁾ 도릭키톤과 다른 점은 아포티그마가 없고 통이 넓기 때문에 어깨에 10개 내지 14개의 피블라나 단추, 브룻치로 고정시키거나 캐맨 점이다.²²⁾ 몸체는 가느다란 끈으로 다양하게 변화를 주며 허리의 위치에서 생기는 개더의 주름을 그대로 흐르게 하는 것, 또는 부드럽게 늘어지게 하여 변

17)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확사*, 1993, p. 52.

18)Blanche Payne, "복식의 역사", 김봉남, 안혜준, 김선영외 1인 공역, *까치*, 1965, p.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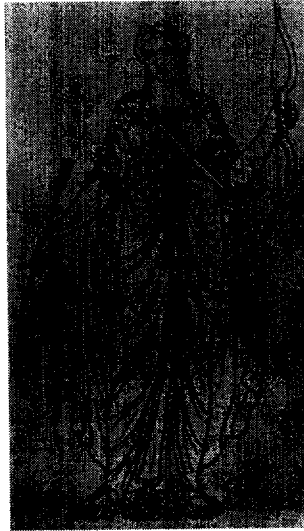
19)千村典生, *ファッションの美學, 衣生活, 衣生活研究, 關西衣生活研究會*, 1991. 5, No.2, 通卷 293号, p. 20.

20)千葉美惠子, 佐佐木きさ子, op. cit., p. 31.

21)ibid., p. 31. ●

22)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1984, p. 51.

화를 갖게 하는 것, 하이웨이스트의 위치에 올려서 가슴에서 교차시켜 주름을 만드는 등 신체가 갖는 곡선의 리듬을 흐르는 것 같이 섬세하게 주름장식 방법으로 표현하여 도리키톤에서 나타난 개더의 조형성에 비해 아름답고 델리케이트하게 조화된 개더의 조형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림 2-9] 이오닉톤 위에 도리키톤을 입고 클라미스를 걸친 다이아나(Diana)
[발췌]서양복식문화사, p.93.



[그림 2-10] 게르마티쿠스(Germanicus)의 부인인 아그리피나(Agrippina:1세기 A.D.)

[그림 2-10]은 로마시대 아그리피나가 착용한 스톨라(stola)로 도리키톤의 아포티그마가 있으면서 이오닉톤의 요소로 도리과 이오닉톤 디자인의 디테일(detail)이 복합되어 있다.²³⁾ 아포티그마에 잔주름과 같은 불규칙한 개더와 무릎 아래서 끌어 올려지는 드레이프 밑단에 풍성하고 많은 양의 개더가 차분히 겹쳐 늘어지는 모습에서 풍부하고 여유로운 가운데 신체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나타내 주는 복식의 미를 표현해 주고 있다. 이 스톨라의 구성을 보면 보다 복잡하고 점점 다이내믹한 개더의 조형성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고대복식에 나타난 개더의 조형성은 지극히 단순한 구성이지만 육체의 곡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빚어내는 드레이프의 미와 부드러운 천에서 생기는 개더의 모습이 리듬과 율동감을 창조해내고 있다. 옷감의 종류와 걸치는 방법에 따라 엄격하거나 장

중할 수 있고 섬세하고 여성적일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으며 은은하고 에로틱할 수도 있는 가지가지로 변화를 줄 수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오프꾸뛰르 복식에 표현된 개더(gather)의 조형성

기존의 오프꾸뛰르 업체는 에르메스(Hermes)의 마틴 마지엘라(Martin Magiela), 지방시(Givency)의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 디오르(Dior)의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 샤넬(Chanel)의 칸 라거펠드(Karl Lagerfeld) 등의 새로운 예술적 디렉터로서 오프꾸뛰르를 재편해가고 있다. 감각적인 신진 디자이너의 영입으로 1990년대 말에 이르는 현대패션은 다원화 현상인 다양성과 가변성이 수용되어 전통적 복귀의 경향을 띄게 되었으며 특히 자연주의의 자연스러운 삶의 멋을 그리는 노스탤지어(nostalgia), 네오클래식(neo-classic) 등의 복고주의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복고주의는 역사주의로서 복식에 있어서는 주로 복고풍(retro look)으로 그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현대에 있어서는 현재의 인간감정과 시대상에 어울리게 재정립됨으로써 새로운 양식으로 탄생되어 고대 이집트 이래 최근 199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다원화의 속성은 수평적 다양성으로 나타나 양식이나 형식, 장르간의 구분이 허물어져 복식에 있어서는 아이템(item)이나 소재, 디자인에서 혼합적 양상을 띄게 되었으며 이러한 믹스현상은 트렌드의 부재, 패션의 부재라 할 수 있는 해체주의적 경향을 띄게 되었다. 이러한 세기말적 특성이 로맨티시즘, 복고풍, 페미니즘적 경향으로 부드러우면서도 여성스러운 드레이프성을 표현하기 위한 복식 조형기법으로써 개더가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개더는 복식에 있어서 기능적인 측면과 장식적인 측면이 융합되어 착용자나 디자이너에게 있어 미적 표출로서만이 아니라 감성적 표현의 요소로 자리한다.

[그림 3-1]은 피에르 가르탱(Pier Gardin)이나 장 파투(Jean Pathau)의 오프 꾸뛰르 하우스에 입문했던 장 폴 고틀리에의²⁴⁾ 첫 파리 오프꾸뛰르의 작품으로 1990년대의 패션계를 리드했던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구성의 테일러드 슈트(suit)에 소매끝을 개더로 처리함으로써 미니멀리즘의 질정과 이에 반발한 로맨티시즘 무드의 부활로 상반된 두 양식이 공존하는 패션을 보여준다. 또한 머플러를 두르므로써 생겨난 드레이프와 개더는 진화색의 슈트와 묘한 조화를 이루어 중세의 수도자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3-2]는 지아니 베르사체(Gianni Versace)의 살몬빛(salmon) 새틴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직물의 매끄러운 흐름과 광택으로 여성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새틴은 시각적이며 촉각적 요소로서만이 아니라 패티쉬(patish)의 소재로 섹슈얼한 이미지의 정신적 부분을 함축하고 있다. 이 작품은 목과 바디스(bodice)에 개더의 기법을 활용한 복합구성으로 넥크라인에는 고대의 자연발생적인 개더의 활용으로 자연스런 흐름을 연출하였으며 바디스에는 바디의 절개를 따라 다아트(dart) 대신에 실루엣을 개더로 처리하여 기존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개더로 인해 생기는 불협감을 탈피함으로써 바디 콘서스 라인(body conscious line)을 표현하였다.

23)백영자의 1인, 「서양복식문화사」, 도서출판 경춘사, 1991, p. 101.

24)Vogue, 1997, 4. p.137.



[그림 3-1] Jean Paull Gaultier



[그림 3-2] Gianni Versace



[그림 3-3] Lapidus



[그림 3-4] Lapidus



[그림 3-5] Yves Saint Laurant



[그림 3-6] Gianni Versace

[발췌]Paris Haute Couture 97-98 A/W
Fashion News, 97.10.

[그림 3-3]은 우크라이나 전통복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모피 모자와 스티치를 박아 잡아당기는 전형적인 개더를 어깨와 네크라인에 활용한 벨벳 원피스로 에스닉과 로맨틱 무드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벨벳, 새틴, 짧은 털의 모피 등은 빛의 반사와 흡수로서

재질감을 표현할 뿐 아니라 여성성을 강조할 수 있는 소재로 털 모자나 벨벳의 사용, 벨벳으로 개더 잡은 부분을 새틴으로 처리함은 소재매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통적인 오피 꾸뛰르적인 소재의 사용은 구성기법으로서의 개더로 인해 통일적 조형미를 표현하고 있다.

[그림 3-4]는 플라운스 형태의 바이어스 천에 개더를 잡은 개더리플(gather ruffle)을 크기를 달리해서칼라에서 발끝까지 앞중심을 처리함으로써 개더 자체가 겹치면서 나타나는 3차원적 자유곡선이 파도물결과 같은 파상선을 중첩되게 그리고 있다. 이는 착장자가 움직임에 따라 개더가 그리는 파상선의 흔들림으로 울퉁감과 리듬감을 표현하며 살아 있는 동태미를 느끼게 해준다.

[그림 3-5]는 긴 조각으로 된 천을 가슴위치로 부터 여러 조각을 늘어 뜨려 봉제로 이어 붙이지 않고 사슬로 묶음으로써 인체를 인식하는 룩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사슬로 인한 자연발생적인 개더로써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의 자연주의적 양식을 모방하여 인위적인 과장과 축소를 벗어난 형태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3-6]은 사각의 직물로 한쪽 어깨만 꼬아 연결시키는 2차원적인 구성방법으로 몸판 전체에 고대 복식에서 볼 수 있는 자연 발생적인 드레이프가 형성되어 3차원적인 입체감을 주고 있다. 이에 연결된 바디스의 개더는 인위적인 형태구성으로서 현대와 고대 복식이라는 하나의 흐름 위에 존재하고 있음을 표현하였다. 가죽소재의 라제리 위에 새틴소재로 된 오블리크 넥(oblique neck)의 겹옷을 병치시킴으로써 소재로써 앤드로지너스적 요소를 부각시키고 있다.

착장형태로서 패드의 표면화는 속옷의 겹옷화 현상으로 코디네이션의 상호텍스트성으로 기존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혼합, 대비 등의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이미지, 목적, 용도가 다른 아이템이 상호 인용되어 부조화된 양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모순과 모순이 발전하여 대립으로써 완성되는 다양성의 표현으로 최근의 해체주의적 성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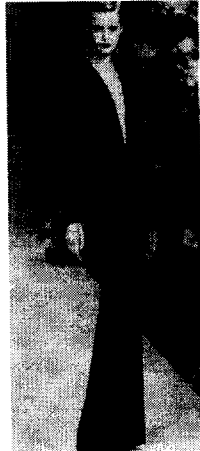
[그림 3-7] Givenchy

[발췌]Paris Haute Couture 97-98 A/W
Fashion News, 97.10.

[그림 3-7]은 하나의 천을 굵고 접어 양쪽 끝을 스티치하여 잡아 당겨 목둘레를 개더로 처리한 케이프형 자켓으로 구성상의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으며 개더 잡힌 어깨의 끝마무리를 모피(fur)로 장식하고 있다. 새틴으로 인한 빛의 반사와 모피에서 보여주는 빛의 흡수의 상반된 효과는 현대의 해체주의적 조형양식을 보여 주고 있다. 케이프형 자켓은 소매를 따로 부착하지 않으면서 몸판과 소매가 하나로 연결되어 여유있는 드레이프를 유도하여 걸을 때마다 팔의 움직임을 통한 자연스런 동태미를 보여줌으로서 기능성과 구성상의 조형미가 융합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에 레이스로 된 드레스의 로맨틱함과 시스루의 에로틱함이 함께 조화를 이루었으며 이와는 상반되게 머리형태에 있어서는 글라스와 P. V. C.의 장식으로 금속성의 차가움이 함께 어우러져 현대의 다원화된 형식을 복식으로써 표현하고 있다.



[그림3-8] Paco Rabanne [그림3-9] Yves Saint Laurent
[발행]Paris Haute Couture 97~98 A/W
Fashion News, 97.10.



커팅의 묘미를 즐겨하는 파코라반(Paco Rabanne)의 작품인 [그림 3-8]은 메탈릭한 소재와 은색의 P. V. C 등의 글리터(glittery) 소재에서 느껴지는 경직감, 차가움의 느낌을 햄라인에 개더링함으로써 유연미와 유동미가 있는 발룬 스타일(balloon style)로 표현하였다. 이에 정교한 디테일적 요소가 융합되어 여성스러움과 경쾌함을 나타내고 있으며 샤이니(shiny) 소재인 새틴과 미래적 소재에서 느껴지는 사이버룩(cyber look)에 개더로 인한 볼륨감의 표현은 소재와 디테일의 혼합적 양상으로 기존의 스테레오 타입(stereo type)을 깨고 있다.

[그림 3-9]는 미니멀적 양식으로서의 롱 앤 린(long & lean) 스타일에 복부를 중심으로 한 개더의 활용으로 직선적 라인을 방사선 방향으로 위치시킴으로 다이어트로 표현할 수 있는 인체의 피트(fit)함을 개더로 대체시키는 구성상의 변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주름장식과 드레이프성은 오프꾸뛰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태양을 상징하는 조형적 미를 연출하고 있다. 넥라인과 전체적인 실루엣에서 느껴지는 단순함이 개더로 인한 여성성과 어우러져 현대적인 복식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당대(當代)의 복식미는 그 시대의 양식화된 형식에 의해 정의될 수 있으며 그 양식은 사회적 조류와 관련한다. 개더는 면에 주름을 잡아 볼륨감을 표현하는 조형 기술로서 기능

적 측면으로서만이 아니라 형태구성, 착시효과, 소재에서 오는 질감과 촉각적 변형 등의 감정적 효과를 발현하므로 복식의 조형미를 표현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으며 조형예술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대 복식에 나타난 개더의 조형성은 지극히 단순한 구성이지만 육체의 곡선에 따라 자연스럽게 빛어내는 드레이프의 미와 부드러운 천에서 생기는 개더의 모습이 리듬과 울동감을 창조해 내고 있으며 옷감의 종류와 걸치는 방법에 따라 조형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말의 패션의 흐름은 퍼프소매나 깃털 장식, 레이스 등을 이용한 로맨틱시즘과 에로티시즘의 대두와 함께 조형적 요소로서 개더의 디테일한 표현이 복식의 무드를 표현하는 감정적 주제로 애용되고 있다. 이에 부흥하여 최근 오프꾸뛰르에 나타난 개더의 유형은 20세기말의 이데올로기인 다극화, 다양화된 새로운 질서를 반영하고 있는 해체주의에 영향을 받은 패션디자이너들에 의해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도구로 이용되어 복식에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해체주의 복식의 유형으로서의 아이템이나, 소재, 디자인에서 혼합적 양상은 개더의 디테일적 요소와 융합, 상충, 병치되는 등 인위적인 구성인 복합구성의 자유로운 형태로서 다종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종합하여 볼 때 현대 복식에 나타난 개더의 유형은 소재에 있어서 오프꾸뛰르에서 볼 수 있는 벨벳, 새틴, 레이스, 망사, 쉬폰 등 전형적인 소재에 개더가 표현되기도 하였으나 그 외에도 플라스틱 소재, 폴리우레탄, 비닐, 콤팩트 조직의 3차원의 원단 등 미래적 소재와 결합되어 나타남으로써 소재선택에 있어 전체적 실루엣의 구성이나 이미지의 표현 등의 미적 구성을 고려한 기존의 복식조형과는 다른 조형양식을 보이고 있다. 또한,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테일러(tailor) 등이 오프꾸뛰르 컬렉션에 혼재하여 나타남으로써 양자간의 반대급부적 요소가 개더로 인해 해소되고 있으며 다이어트와 같은 구성상의 역할을 대신함으로써 변화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개더는 현대적 특징을 가지면서 변화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양식이나 형식, 장르간의 구분이 허물어지는 다원화의 속성으로 개더의 기법도 복식의 활동성과 가능성을 보유함은 물론 인체를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요소와 장식적 측면이 다른 기법등과 혼합되어 나타나는 등, 복합구성으로 복식의 중요한 조형요소로 이용되어 복식의 형태에 있어서 구조적 형태와 디테일간의 조화를 이루기 보다는 조화를 깨는 불균형적 미를 띄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나타난 개더의 유형은 기존의 개더의 구성에서 보여지는 기능성에 장식적 요소가 부합하여 창조적이며 독창적인 아이디어 발상의 도구로 존재할 뿐 아니라 3차원적 구성이라는 현실적 적합성을 적절히 표현함으로써 개성적이며 주제적인 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 백영자의 1인, 「서양복식문화사」, 도서출판 경춘사, 1991.
- 신상옥, 「서양복식사」, 수학사, 1993.
- 유종렬, 「공예문화」, 민병산 역, 신구문화사, 1984.
- 정시화, 「현대디자인연구」, 미진사, 1981.
- 정홍숙, 「복식문화사」, 교문사, 1984.
- 정홍숙의 고증, 고대이집트문명, 도서출판(주), 에이피 인터내셔널(editions A. P. I), (주)아문, 1997. 6, p. 128
- Blanche Payne, 「복식의 역사」, 김봉남, 안혜준, 김선영의 1인 공역, 까치, 1965.
- Herbert Read, The Meaning of Art, London: Faber & Faber Limited, 1974, 윤일주 역, 「예술이란 무엇인가」, 서울; 을유문화사, 1986.
- Linda Dyett, Art to Wear, 「종합디자인」, 서울, 1985. 2.
- Marian L. Davis, 「복식의 시각디자인」, 이화연의 2인 공역, 경춘사, 1990.
- Wucius Wong, 「디자인과 형태론」, 최길렬 역, 서울; 도서출판 국제, 1995.
- 민경애, “주름의 선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영민, “선의 율동미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이은경, “복식에 표현된 ‘Pleats Design’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이유경, “주름의 조형성을 이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진성모, “Fashion Design의 조형적 특성과 그 실현가능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千村典生, ファッションの 美學, 衣生活, 衣生活研究, 關西衣生活研究會, 1991, 5. No.2, 通卷 293号.
- 千葉美恵子, 佐佐木きさる, “ギャザーの 變容について”, 衣生活, 衣生活研究會, 1985, 4. No.1 通卷 256号.
- 井場はぎの, “Flareについて 研究”, 衣生活研究, 關西衣生活研究會, 1991, 11. vol.18, No.5.
- 한국염색신문, 1997, 5, 26.
- 패션투데이, (주)패션정보사, 1997, 2.
- Vogue, 1997, 4.
- 이집트 문명전, 1997, 6.